



[금융]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압도적 리딩뱅크로 도약할 것” 05



Life

[라이프] 인플루언서 마케팅 홍보효과 좋지만 폐해도 심각 니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시민청원…朴시장 해법 주목

(박원순)

난임주사 청원 찬성 5000명 돌파 검토 후 오는 3월 13일 박시장 답변

인구절벽 위기에 저출산 해결 관심 부작용·보건소 업무 가중 우려도

“동네 가까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주세요”

인구 1000만선 붕괴를 코앞에 둔 서울시가 난임 부부 지원정책으로 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지난해 1월 올라온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달라’는 청원이 50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게 됐다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찬성 5036표, 반대 135표를 받아 9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린다.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달라’는 청원이 50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게 됐다. /서울시

5000명이 공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원자는 “난임병원에서 처방해준 난임 관련 외부 주사를 동네 의원에서 맞게 되는 경우 일반 주사라 가격이 비싸다”며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병원, 의사회 등 유관기관과의견 조율 및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3일 박시장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라며 “주사제 처치,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12만7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 판정을 받으면 4~8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엉덩이나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 엉덩이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렵고, 잘못 놓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특정 4개(강남·강

서·노원·송파)구에 밀집해 있어 난임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임 부부들은 “병원마다 주사료가 천차만별”이라며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 한 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 의뢰서를 들고 찾아가도 거부하는 곳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는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기관으로 주사료가 저렴하고 난임 병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에는 25개의 보건소와 18개의 보건지소, 20개의 보건분소가 들어서 있다.

난임 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에 의한 출생아 수는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에서 2017년 2만854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생아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에서 2017년에는 5.8%까지 늘어났다. 아기 100명 중 6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탄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주사제에 대한 처치 행위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주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해당 내용의 청원에 “외부 처방된 주사제를 보건소에서 주사할 경우 약제 안전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관리사업 중심의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I·SEOUL·U’ 3주년… 시민 70% “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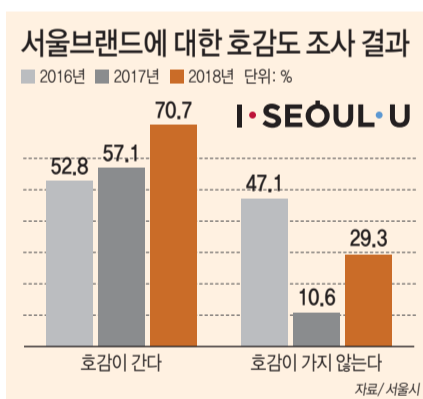
서울 브랜드 도입 3주년 맞아 설문조사 이유·편안, 다양성 등 이미지 담을 것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서울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를 알고 있으며, 약 70%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이 서울 유’(I·SEOUL·U) 도입 3주년을 맞아 20~5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서울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70.7%가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63.0%, 2017년 66.3%에서 2018년 84.0%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는 2016년 52.8%, 2017년 57.1%에서 2018년 70.7%로 17.9%p 증가했다. 반면, 서울브랜드가 ‘의미가 내



게 와 닿지 않는다’, ‘딱딱하고 단순하다’, ‘독창적이지 않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등의 비호감을 표시한 시민도 29.3%나 있었다.

이에 대해 시는 “향후 공존, 열정, 여유라는 서울의 핵심가치를 담은 도시 브랜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시민들은

‘현대적이다’(53.5%), ‘다양하다’(47.5%), ‘활기차다·역동적이다’(45.3%), ‘안전하다’(14.4%) 등을 꼽았다.

외국의 다른 도시에 비교해 서울이 가진 경쟁력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과 생활 안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다’(221명), ‘관광명소나 랜드마크가 많다’(56명), ‘IT강국’(51명)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인 여유와 편안, 다양성, 국제적, 재미와 즐거움 등을 서울브랜드 정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2019년 사랑의 떡국 나눔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떡국 나눔 시무식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한 적십자 임직원과 봉사원들, 적십자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욱씨가 노숙인과 인근 독거노인 등에게 새해 떡국을 제공하고 있다. /연철뉴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 융자지원

긴급자금 필요한 사회적기업 모집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경기도가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이자 지원 비율은 올해 2.5%로 확대돼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20억원을 출연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 첫 해 4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296억원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 지원했다.

운전(운영)자금 융자이자 지원 비율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운전(운영)자금 융자대출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도 100억원, 융자한도 2억원, 보증비율 100%는 작년과 같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공정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운영)자금 융자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역대 최고… 음식물 반입금지 ‘좋아요’

쾌적·편리성서 높은 점수 받아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일 발표한 ‘2018년도 서울버스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 버스는 전년보다 0.22점 오른 81.24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했다. 마을버스는 1.25점 오른 80.94점, 공항버스는 0.14점 하락한 85.19점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각 노선을 주 3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승객 총 2만17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쾌적성(청결상태, 안내

방송, 냄새·온도) ▲편리성(카드 단말기, 하차벨, 좌석 등 편의시설, 노선도·교통약자석·불편신고) ▲안전성(교통약자 탑승확인후 운행, 과속, 급출발·급제동, 교통 신호 및 법규준수), ▲신뢰성(정류소 정차장소 준수, 친절응대, 노선·정류소 변경 등 정확한 안내) 등이다.

항목별로 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쾌적성과 편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내버스는 쾌적성 83.07점, 편리성 83.17점을 마을버스는 쾌적성 82.07점, 편리성 82.04점을 받았다.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지난해 초

부터 시행된 ‘차내 음식물 반입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내버스는 91.7%, 마을버스는 93%에 달하는 응답자가 해당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공항버스는 쾌적성(91.38점)과 안전성(91.3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공항버스에 대해서만 운행시간, 배차간격, 운임요금 등을 포함한 ‘운영 및 서비스’ 부문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여기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시내버스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